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9(4), 385-402 (2024)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수분류사 구문의 수사 제약에 따른 한국어 복수 표지 습득

김소영

동명대학교

The Acquisition of Korean Plural Marking under a Numeral Constraint in Numeral Classifier Phrases by Chinese Learners of Korean

Kim, Soyoung

Tongmyong University

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9.4, 385-402**. The study aims to explore the Korean plural marking under the numeral constraint by Chinese learners of Korean. The Korean plural morpheme, '-tul,' is often omitted when associated with a non-human noun in a numeral classifier phrase, while it can co-occur with a human noun. The study conducted an acceptability judgment task, in which participants assessed the acceptability of plural-marked [+human] or [-human] nouns in pre-numeral and post-nominal classifier constructions. The findings unveiled an asymmetrical acceptance of plural-marked nouns with varying animacy features across the two classifier constructions. Overall learners' preference for post-nominal structures seemed to be influenced by input frequency in the L2 comprehension of numeral classifier constructions. These results are discussed within the context of the Feature Reassembly Hypothesis. **(Tongmyong University)**

Keywords: Korean plural marker -tul, numeral constraint, plural marking, feature assembly hypothesis, animacy

OPEN ACCESS

https://doi.org/10.18627/jslg.39.4.202402.385

pISSN : 1225-4770
eISSN : 2671-6151

Received: January 22, 2024

Revised: February 05, 2024

Accepted: February 16, 2024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2024 the Modern Linguistic Society of Korea

본인이 투고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으며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추후 중복게재 혹은 표절된 것으로 밝혀질 시에는 논문게재 취소와 일정 기간 논문 제출의 제한 조치를 받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1. 서 론

수량 표현은 모든 언어에 나타나는 보편적이고 중요한 문법 범주로 개별 언어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수량을 나타낼 때 분류사(classifier)나 수사(numeral)가 사용되는데, 언어 유형론에 따라 분류사 없이 수사만 사용되는 '복수 표지 언어'와 수사와 분류사 모두가 사용되는 분류사 언어'로 나뉠 수 있다(악일비, 2019: 1-5). 한국어는 수사와 분류사 모두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합

-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8030885).

되는 명사의 복수 표지 실현까지 가능한 언어이다. 한국어 복수 형태소 '-들'이 결합된 유표형 명사는 개체 간 경계가 분명해지는 분산적 복수 개념을 가지는 반면, '-들'이 탈락된 무표형의 경우 집단적 복수 의미를 지니게 된다(백미현, 2002).

한국어 복수 형태소 '-들'은 사용이 임의적일 때도 있지만 특정 언어 환경에서는 의무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들' 실현 제약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소 중의 하나는 유생성(animacy)이다. 예를 들어, 유생성 속성이 높은 사람 명사나 동물 명사는 복수 의미를 표지하기 위해 '-들'과 결합되는 빈도가 높은 반면, 그보다 유생성 위계가 낮고 [-유생성] 속성을 가진 사물 명사, 추상 명사는 -들과의 결합이 어색하여 사용 빈도가 현저히 감소한다(김소영, 2022a; 백미현, 2002; 왕효성, 2012; 정경숙, 2011; 정혜, 2011; Hwang, 2012). 그러나 개체성이 강조되는 문맥 내에서나 한정적 지시어와 함께 사용될 때에는 무표형 표지가 자연스러운 사물 명사, 집합성이 강조되는 총칭 명사, 심지어 고유 명사도 유표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김소영, 2022b; Hwang, 2012; Su, 2019).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들'은 명확한 수를 나타내는 수사 관형어와 함께 사용될 때 실현 제약을 겪는다. 이는 의미론적으로 수사의 등장으로 인해 관련 명사가 복수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면서 또 다른 복수성을 나타내는 '-들'이 부가되는 것이 잉여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백미현, 2002; 정혜, 2011; Hwang, 2012). 그러나 이러한 제약이 명사 종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기보다 수분류사 구문(numeral classifier phrase) 내의 결합 명사가 사람 명사인 경우에 유표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강범모, 1999; 김상대, 1994; 백미현, 2002; 정혜, 2011; Hwang, 2012).

한국어와 같이 중국어는 수사와 분류사를 사용할 수 있는 '분류사 언어'에 속하지만, 수분류사구의 통사 구조(어순) 및 격 표지(case marker), 관련 명사의 복수성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박종언 · 박명관, 2020). 중국어에서는 복수 표지 '们'이 한국어 대응어 '-들'에 비해 결합할 수 있는 명사 종류에 제약이 있다. '们'은 사람 명사나 의인화된 동물 명사를 제외하고 그보다 유생성 위계가 낮은 명사들과의 공존이 불가능하다. 수분류사 구문 내에서도 결합 명사가 사람 명사라 할지라도 유표형으로 나타날 수 없다(예, 三个人/*三个人们). 두 언어는 수분류사 구문 내 복수 표지 실현 제약뿐만 아니라 수분류사구의 통사 구조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있다. 한국어의 경우, 수분류사 구문 내 결합 명사를 중심으로 수사-분류사 복합체가 전치 또는 후치할 수 있는 반면, 중국어에서는 수사-분류사 복합체가 관련 명사에 후치하는 구조보다 전치하는 구조를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한다(정우영 · 양호, 2013).

이와 같은 두 언어의 상이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같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한국어 교재들에는 '-들'의 복수 표지 특징이나 수사 제약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고급 단계의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복수체계에 대해 정확하게 배운 적이 없다(김소영, 2022a; 하신영, 2021). 이러한 현실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명확한 지식 유입 없이 수사와 관련한 한국어 복수체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떠한 오류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에 기저 하는 메카니즘이 무엇인지를 학문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최근에는 명사 복수성(plurality), 성(gender) 또는 복수 일치(agreement), 분류사 등과 같은 형태-통사적(morpho- syntactic) 문법 요소와 관련한 제 2언어 습득 분야에서 범언어적 상이성(cross-linguistic difference)을 가진 L2 학습자들의 언어 발달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보고되었다(김소영, 2022b; Hwang, 2016; Lardiere, 2008; Lee and Lardiere, 2016; Su, 2019). 특별히 분류사 습득은 형태-통사적 요소들의 통사적, 의미적 속성의 연합을 통해 이뤄져야 하므로 L2 학습자의 언어 발달뿐만 아니라 인지 발달 체계를 가늠할 수 있는 문법으로 간주된다. 이들 선행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결과는 제 2언어 학습자는 목표어 습득 초기 단계에 탈락(deletion) 및 과도한 사용(overuse)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어민

수준의 지식 습득이 지연되는 원인으로서 모국어 전이, 입력 빈도 등의 가능성이 고려되었다. 또한 오류의 원인과 전반적인 발달 단계는 Lardiere(2008)의 자질 재조립 가설(Feature Reassembly Hypothesis)에 따라 L1의 자질 집합체(feature bundles)가 L2의 자질 체계로 재구성(reconfigure)된다는 패러다임 내에서 논의 되어왔다(Hwang, 2012; Lee and Lardiere, 2016; Su, 2019).

한국어와 중국어가 수분류사 구문 내 결합 명사의 복수 표지 및 어순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관련 문법요소의 실현과 제약 관련 자질 표상이 서로 다름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제2언어 습득 연구가 매우 미진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복수 표지 체계에 대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수행을 관찰하여 그들의 중간어 체계와 발달 과정을 조명하고자 한다. 한국어 복수 표지에 대한 수사 제약은 이론적 연구를 통해 예문 중심의 분석과 논의로만 남아 있을 뿐, 한국인 성인 화자에게 어떠한 형태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성인 화자들이 통제 그룹으로서 관련 문법에 대해 어떠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단순히 대조군의 기능을 넘어서 중요한 측면으로 간주 된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명사 선행 수분류사 구조(pre-nominal numeral classifier construction)와 명사 후 수분류사 구조(post-nominal numeral classifier construction)에 포함된 결합 명사가 관련 유생성 정도에 따라 어떠한 복수 표지 양상을 띠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능숙도(proficiency)가 이러한 수행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도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관련 현상에 대한 이론적 프레임으로 주요하게 사용되어 온 자질 재조립 가설과 입력 빈도(input frequency)를 기반으로 다각도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수사 제약 및 수 표지에 대한 오류를 유형화하고 원인 규명을 통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형태론 문법 교육 및 체계를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한국어와 중국어의 수분류사 구문(Numeral Classifier Phrase)

본 장에서는 한·중 양국어의 수분류사 구문을 살펴보고 분류화 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수량 표현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수사, 분류사, 그리고 수량적 표현의 수식을 받는 핵심 명사이다. 핵심 명사를 중심으로 수사-분류사 복합체의 상대적 어순, 분류사의 유무, 피수식 명사의 유정성 및 복수 표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수분류사 구문이 생성된다(박종언 · 박명관, 2020).

한국어에서는 핵심 명사를 중심으로 수사와 분류사가 이에 선행하는 '명사 선행 수분류사구'(pre-nominal numeral classifier phrase)[1]가 있다(본고에서는 전치 구조라 칭함). 이 구성에서는 관형격 조사 '-의'가 아래의 (1)과 같이 분류사와 명사 사이에 삽입되어 사용된다.

1) 박종언과 박명관(2020)에서 수사-분류사 복합체와 결합 명사구의 상대적 어순을 토대로 수사-분류사 복합체가 피수식 명사에 선행하는 구조를 '명사 선행 수분류사구', 관련 명사에 후치하는 구조를 '명사 후 수분류사구'라고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따라 동일한 두 개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보다 간단한 표지를 위하여 수사-분류사가 명사 '전에 위치'함을 강조하는 '전치 구조', 명사 '후에 위치'함을 나타내는 '후치 구조'라는 용어를 자체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1) a. 두 명의 남자
b. 두 마리의 토끼
c. 두 대의 차
d. 한 줄기의 햇살 (정우영 · 양호, 2013: 207)

일반적으로 분류사는 명사의 기능, 모양, 생물 성질에 따라 단위가 결정되고, 사람, 동물, 사물, 추상적 개념 등과 같이 가산 또는 불가산 명사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분류사와 피수식 명사 사이에 삽입된 관형격 조사 '-의'는 명사 선행 수분류사 구조에서만 등장할 수 있지만, 아래 (2)와 같이 그 사용이 항상 의무적이지는 않다.

(2) a. *두 명 남자
b. 두 마리 토끼
c. 두 대 차
d. 한 줄기 햇살

(2a)는 사람 명사가 포함된 수분류사 구문에서 관형격 조사 '-의'가 탈락되면 부자연스러운 반면, 사물 명사 및 추상 명사에서는 수용적임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명사 선행 수분류사 유형의 관형격 조사 '-의'는 결합하는 명사의 성질에 따라서 그 출현에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명사 선행 수분류사구 이외에 핵심 명사를 중심으로 수사와 분류사가 후치하는 유형도 있다. 이러한 '명사 후 수분류사구'(post-nominal numeral classifier phrase) 또는 후치 구조에서는 아래 (3)과 같이 전치 구조에 포함되었던 '-의'는 제외하고 나머지 요소의 교체는 성립 가능하다.

(3) a. 남자 두 명
b. 토끼 두 마리
c. 차 두 대
d. 햇살 한 줄기

(1)에 대비하여 관형격 조사 '-의'를 제외한 모든 성분이 그대로 사용된 명사 후 수분류사 구문은 자연스럽기는 하나 항상 이러한 교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명사 선행 수분류사구에 사용된 성분이 동일하게 명사 후 수분류사구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분류사의 종류에 따라 관련 문장이 수용되지 않을 수 있다(예, 한 길 물속 vs. *물속 한 길).

한국어와 유사하게 중국어도 수사와 분류사를 모두 사용하는 언어이지만, 수분류사구의 구성 요소 및 어순 유형에 있어서 한국어와 상이점이 있다. 정우영과 양호(2013)에서는 중국어의 명사 선행 수분류사 구문이 결합 명사의 유생성 제약 없이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고 이것이 중국어 수량적 표현의 전형적이고 보편적인 구조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구조에서는 한국어와 달리, 관형격 조사 '-의'와 같은 요소가 삽입될 수 없어 수사+분류사+명사로만 하나의 유형을 형성한다.

(4) a. *两个的男人(두 명의 남자) vs 两个男人(두 명 남자)
b. *两只的兔子(두 마리의 토끼) vs. 两只兔子(두 마리 토끼)
c. *两支的铅笔(두 자루의 연필) vs. 两支铅笔(두 자루 연필)

(4a), (4b), (4c)는 한국어 관형격 조사 '-의'에 상응하는 '的'이 전치 구조에 삽입되면 해당 문장이 허용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중국어의 명사 후 수분류사 구문을 살펴보자.

(5) a. *朋友两个 (친구 두 명)
b. *兔子五只 (토끼 다섯 마리)
c. *花九朵 (꽃 아홉 송이)
d. *啤酒二十杯 (맥주 이십 잔)

(5)에서 보듯이 중국어의 명사 후 수분류사 구문[2]은 전치 구조와 반대로 [±유생성]을 가진 어떠한 명사와도 결합될 수 없다. 이를 통해 중국어는 후치 구조보다 전치 구조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임을 알 수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수사-분류사와 함께 사용되는 피수식 명사의 복수 표지에서도 명사의 유생성 속성에 따라 표지 양상이 달라진다. 한국어에서는 수분류사 구문 내 명사의 복수 표지 실현이 사람 명사인 경우만 가능한 수사 제약이 있다.

(6) 다섯 명의 학생(들)
(7) *五个学生们

한국어 수분류사 구문에서는 (6)과 같이 사람 명사 '학생'이 유표형 또는 무표형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보다 유생성 위계가 낮은 명사들은 수사 등장으로 인하여 복수 표지가 유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제한된다(Hwang, 2012; Lee and Lardiere, 2016; Su, 2019). 다시 말해, 한국어는 수사 제약에 따라 사람 명사에서만 –들의 부착과 탈락이 모두 허용되지만 그보다 낮은 유생성 속성을 지닌 명사에서는 '-들'이 등장할 수 없다[3]. 한국어보다 복수 표지 제약이 광범위하게 일어난다고 알려진 중국어는 일반적으로 보통 명사의 복수 의미를 나타낼 때 [+human] 명사에서만 '们'이 부착되고 [-human] 명사와는 결합될 수 없다. 이러한 제약은 수분류사가 등장하는 환경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데, (7)에서 보듯이 사람 명사는 '们'과 결합 될 수 없다.

정리하면 한국어는 수분류사 구문 내의 피수식 명사의 복수 표지가 명사의 [±human] 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중국어는 그 유무에 상관없이 복수 표지가 실현될 수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류사 구문의 구성 요소 및 구조는 아래의 <표 1>과 같이 비교 정리될 수 있다.

2) 정우영과 양호(2013)에서는 이 유형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엄격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보편적인 구조가 아니라고 하였다.
3) 수사 제약이 수분류사 구문 내 명사의 [±human]에 따라 복수 표지 실현이 결정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human]이지만 [+animacy]인 동물 명사가 사람 명사와 동일하게 수사 제약을 받는지 여부, 특히 수분류사 구문 내 유표형 표지 여부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미미하므로 이에 대한 실증적 방법의 탐구가 필요하다.

표 1. 한국어와 중국어의 수분류사 구문 비교

		한국어	중국어
전치구조		O	O
후치구조		O	X
수사 제약	[+human]명사	복수 표지 가능	복수 표지 불가능
	[-human]명사	복수 표지 불가능	

2.2 수분류사 구문의 제 2언어 습득에 관한 선행 연구 고찰

한국어와 중국어의 복수 표지에 대한 수사 제약 양상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 2언어 습득 분야에서 이에 대한 실증적 방법을 통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소수의 연구들 중에서 수분류사 구문 구조와 분류사에 대해 실험적 방법을 사용한 제 2언어 습득 연구는 Hwang(2016)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Hwang(2016)은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수량적 표현 구조에 대해 어떠한 발달 단계를 거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최초로 한국어의 전치 및 후치 구조 중 어떤 유형이 선호되는지, 수사-분류사 복합체가 포함된 구조에서 영어권 학습자가 분류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지를 탐구하였다. 영어 복수 표지 –s는 분류사에 부착(예, a three bottles of water)될 수 있는 반면, 한국어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예, *세 병들의 맥주). 또한, 영어에서는 한국어의 전치 구조에 상응하는 구조가 존재하지만, 후치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연구는 총 85명의 한국어 학습자를 한국어 능숙도에 따라 중급-고급으로 나누고 산출과제(elicitation task)를 실시하였다. 피실험자에게 6종류의 그림을 보여주고 각각의 그림에서 묘사하고 있는 상황을 토대로 의문문을 생성하도록 하였다. 이 때 여러 개의 개체가 등장하는 그림을 통해 참가자는 전치 구조 또는 후치 구조가 포함된 문장을 산출하도록 하였다(예, 왜 자동차 두 대가 여기 있어요?). 실험 결과, 한국인 통제 그룹은 후치 구조를 선호하였는데, 한국어 L2 학습자 역시 이러한 유형을 선호하여 문장을 생성하였다. 한국어 L2 학습자가 L1 문법에 존재 하지 않은 후치 구조를 선호하고 통제 그룹과 유사한 응답 양상을 보인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Hwang(2016)은 그 결과의 원인을 한국어 구어(spoken language)와 문어(written language) 코퍼스에 나타난 후치 구조에 대한 높은 빈도에서 찾았다. 다시 말해, 입력 빈도(input frequency)가 높은 후치 구조가 목표 언어의 관련 문법 습득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전치 구조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 관형격 조사 '-의' 탈락 오류가 중간 및 하위 그룹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다. 또한 분류사 유무에 대한 응답도 분석한 결과, 고급 학습자는 통제 그룹처럼, 분류사를 포함시켜 문장을 완성한 반면, 하위 그룹은 분류사 탈락 오류를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L1에 존재하지 않는 관형격 조사 '-의'가 포함된 전치 구조를 습득하는 것은 고급 수준까지 지연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수분류사 구조에 대한 습득은 입력 빈도의 영향으로 초급 단계서부터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와 분류사가 포함된 명사구 관련 제 2언어 습득 연구에서는 L1과 L2의 관련 문법의 유사성 및 상이성을 토대로 제 2언어 학습자의 목표어 습득 과정에 작동하는 메카니즘과 발달 과정을 자질 재조립 가설(Feature Reassembly Hypothesis, 소위 FAH)을 토대로 설명하고자 하였다(Hwang, 2012; Lee and Lardiere, 2016; Su, 2019). FAH는 기존 L2 습득 패러다임이 L2의 형태-통사적 요소의 습득 지연 및 어려움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기능적 범주(functional category)에 초점을 둔 습득 오류 및 발달 단계를 보완 설명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이에 따르면 굴절(inflection), 복수성(plurality), 수(number)와 성 일치(gender agreement)와 같은 기능 영역에 있어서 범언어적 상이성을

가진 습득 과정에는 L1의 관련 자질들이 L2의 상응하는 문법에 맞게 재조립(reassemble)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했다. 분류사와 연계된 복수 표지도 자질 기하학적(feature geometry) 측면에서 결합 명사가 표상하는 특정 자질 집합(feature bundles) 및 그 하위 종속 자질(embedded- feature)의 유무 및 설정에 따라서 실현과 제약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설령 같은 자질 집합(bundles)이 두 언어에 존재한다 하더라고 목표어의 특정 어휘에 맞는 자질로의 재설정(조립)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결국에는 목표어의 입력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자질 재구성(reconfigure), 재맵핑(mapping) 과정을 거치며 원어민 수준의 문법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자질 재조립 기반 가설을 바탕으로 수분류사 구문 내 수사 제약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Lee와 Lardiere (2016)이다. 수사 제약 관련 L1 문법이 서로 다른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는 관련 자질 집합과 설정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와 같이 인도네이사어에서도 수분류사 구문이 존재하지만, 한국어와 달리 관련 명사의 복수 표지 실현은 허용되지 않는다. 양방향 연구를 통하여 관련 L1의 문법이 서로 다를 때 L2 습득 양상이 각각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한국어 능숙도가 다른(low-intermediate, high-intermediate, advanced) L2 한국어 학습자(L2 Korean learners)와 인도네시아어 능숙도가 다른 L2 인도네시아어 학습자(L2 Indonesian learners)를 대상으로 문장완성과제(sentence completion task: SCT), 문법성판단과제(grammaticality judgement task: GJT), 다중선택과제(multiple choice task: MC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L2 한국어 학습자는 [+human]인 명사가 유표형으로 나타난 문장에 대한 수용력이 한국어 능숙도에 따라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고급 그룹의 학습자라도 원어민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L2 인도네시아어 학습자의 경우는 초급 그룹을 제외하고 고급 그룹이 원어민 화자와 유사한 응답 패턴과 이해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의 L2 학습자를 통해 나타난 비대칭적 응답 양상은 L1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자질 집합과 설정의 차이가 L2 습득 과정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특별히, L2 한국어 학습자가 L2 인도네시아어 학습자보다 목표어 습득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역시 L1의 자질적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L2 한국어 학습자는 L1에 없는 한국어 [±human]에 따른 복수 표지 실현을 자신의 문법 표상에 새롭게 추가해야 하는데, 이는 자질 집합 추가 및 종속 자질에 대한 재맵핑 과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 반면, L2 인도네시아어 학습자는 수분류사 구문 내 복수 표지가 허용되지 않는 인도네시아어를 습득하는 과정에 L1의 [±human]에 따른 복수 표지 문법을 제거만 하면 되므로 자질 추가 및 재설정에 소요되는 어려움이 감소하였을 것이다. 이 결과는 하위 위계의 자질 구분을 요구하는 언어를 목표어로 학습하는 과정은 언어 발달을 지연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수분류사 구문 내 핵심 명사에 대한 복수 표지 지식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식과 연계된 수사-분류사 복합체의 수식을 받는 핵심 명사의 유정성, 수분류사 구조 선호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능숙도에 초점을 맞추어 아래와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1)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서 한국어 수분류사 구문의 복수 표지는 결합 명사의 유생성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특히 명사의 [±human] 속성에 따라 명사의 복수 표지 형태가 달라지는가?

(2) 수분류사 구문 내 상대적인 어순에 있어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전치 구조와 후치 구조 중 어떠한 형태를 선호하는가?

(3) 수분류사 구문의 복수 표지 형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능숙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한국어 성인 화자와 차이가 있는가?

3.1 실험 참가자

본 연구에 실험 그룹으로 참석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부산 소재 대학 내 한국어 어학당 및 대학원에 진학 중인 학생들로서 한국어 능숙도에 따라서 초급, 중급, 고급 그룹으로 나누었다. 이들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실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이해하고, 실험에 사용된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하였다. 각 실험 그룹은 기존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등급 및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나누되, 초급의 경우 TOPIK I에 해당되는 1-2 등급(22명), 중급 그룹은 TOPIK II에 해당되는 3-4 등급(20명), 고급 그룹은 5-6 등급(24명)을 가진 학생들로 모집하였다. 총 66명으로 구성된 실험군과 비교할 통제 그룹은 한국인 성인 화자 30명으로 대학교 2학년~3학년에 재학 중인 학부생이고 모두 중국 거주 경험이 없고 관련 어학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3.2 실험 처치

본 실험은 수용성판단과제(Acceptability Judgement Task: AJT)를 시행하였다. 실험 대상자들은 문장에 포함된 수분류사 구문이 어색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문장이 자연스러우면 '예',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아니오'로 대답하도록 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부정적인 응답을 한 후, 해당 수분류사 구문을 수정하여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도록 요청받았다.

3.3 실험 자료

본 실험에서 실험 문장의 수분류사 구문은 관형격 조사 '-의'를 포함한 전치 구조와 후치 구조로 나누었다. 전치 구조에서 관형격 조사 '-의'는 명사의 성질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용이 임의적이거나 부적합할 때도 있다. 본 실험의 전치 구조에서는 관형격 조사 '-의'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명사들만 선택하였다.

수분류사 구문 내의 명사는 유정성의 위계에 따라 유정성이 높은 명사로 사람 명사, 동물 명사, 유정성이 낮은 명사로 사물 명사, 물질 명사를 설정하였다. 수사 제약에 따라서 명사의 복수 표지 실현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수분류사 구문 내 명사들은 모두 유표형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실험 참가자는 유정성 위계에 따라 설계된 유표형 명사가 수사와 함께 사용될 때 -들과의 결합이 자연스러운지를 판단하게 된다. 수사 제약에 있어 명사의 [±human]는 복수 표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나, 사람 명사와 같이 [+유정성]이지만 이보다 위계가 낮은 동물 명사가 이러한 수사 제약의 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논의된 바가 없다. 따라서 실험 문장의 수분류사 구문 내 명사를 유정성 위계에 따라 조작할 시, 사람 명사와 비교할 수 있는 또 다른 [+유정성] 명사로서 동물 명사를 포함시켰다. [-유정성]의 대표적인 명사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추상 명사를 대신하여 물질 명사를 선택하였다. 추상 명사는 속

성상 가산화가 불가능하고 복수 의미 표지 시 무표형으로만 표기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실험 문장의 핵심이 되는 유표형 수분류사 구문으로 나타낼 수 없다. 반면, 물질 명사는 분류사를 사용하여 가산화할 수 있고 구어 표현에서도 복수 표지 실현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들과의 결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또 다른 [-유정성] 명사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결과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통제 문장이 설정되었는데, 동일한 실험 문장 구조에서 핵심 명사가 무표형으로 나타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실험 참가자는 실험 문장의 유표형 명사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들'이 탈락된 통제 문장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다각도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사-분류사의 위치와 관련 명사의 유정성을 조합하여 만든 실험 문장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실험 문장 샘플

유생성	명사 종류	전치 구조 (수사+분류사+'-의'+명사)	후치 구조(명사+수사+분류사)
-	물질	나는 /두 잔의 /맥주들을 마셨다.	나는 /맥주들 두 잔을/ 마셨다.
	사물	나는 /세 벌의 바지들을/ 샀다.	나는 /바지들 세 벌을/ 샀다.
+	동물	나는 /세 마리의 곰들을/ 봤다.	나는 /곰들 세 마리를/ 봤다.
	사람	나는 /세 명의 학생들을/ 만났다.	나는 /학생들 세 명을/ 만났다.

본 실험에서는 수용성판단과제(AJT)중에 제시된 문장 내 특정 단어/표현의 의미를 알지 못한 어려움이 판단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결합 명사와 분류사의 어휘 난이도를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어 초급 수준의 학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사와 분류사로 선정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인 모국어 화자의 감수를 받았다. 분류사는 초급 수준이라도 이미 배운 단어('명', '마리', '벌', '잔')로 하고 중국어 대응 표현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중국어 번역을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실험 참가자가 특정 단어의 의미 파악에 어려워하지 않고 수용성판단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수분류사 구문 내 4종류의 유표형 명사(인물, 동물, 사물, 물질)를 활용한 전치 구조의 실험 문장 4개와, 동일한 방식으로 생성된 후치 구조의 실험 문장 4개가 조건별로 두 가지 토큰(token)으로 구성되어, 총 16개의 실험 문장이 생성되었다. 실험 문장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면서 무표형 명사로 이루어진 통제 문장은 총 8개로 구성되었다. 이들과 함께 8개의 채우기 문장(filler)을 포함하여, 총 32개의 문장이 무작위 순서로 배열되어 실험 참가자에게 제시되었다.

4. 실험 결과

4.1 전치 구조 분석 결과

결과 분석은 실험 참가자들이 수용성판단과제를 통해 수분류사 구문 내 결합 명사의 유정성과 전치/후치 구조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 로 응답한 빈도수를 조사하였고 '예' 응답수를 토대로 평균 비율을 계산하였다. 전치 구조가 포함된 실험 문장에서 유표형 명사에 대한 수용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실험 참가자의 한국어 능숙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치 구조가 포함된 실험 문장에 대해 mixed design ANOVAs[4] 분석을 통해 개체 내 효과 검정 및 개체-간 효과 검정

을 한 결과, 명사 종류((F(3, 91)=25.648, p=0.00)와 그룹 유형(F(3, 45), p= 0.01)에서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명사 종류x그룹 유형 간의 교호 작용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9, 91)=6.875, p=0.00).

아래의 <그림 1>은 유표형으로 나타난 네 종류의 명사에 대한 수용 응답 비율을 실험 참가자 그룹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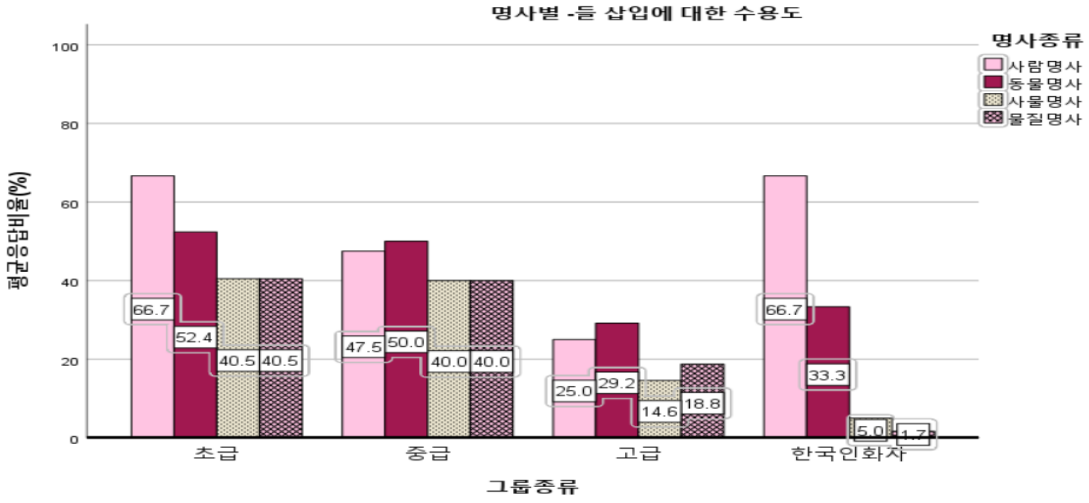

그림 1. 전치 구조의 유표형 명사에 대한 수용도

유표형 사람 명사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을 조사한 결과 <그림 1>에서 보듯이, 초급 그룹에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동물 명사를 제외한 사물 명사, 물질 명사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사물 명사 p=0.00, 물질 명사 p=0.01).[5] 그러나 중급 그룹에서는 유표형 사람 명사에 대한 응답 비율이 타 명사와 유사한 수준이었고 통계적 차이 역시 보이지 않았다(동물 명사 p=1.00, 사물 명사 p=1.00, 물질 명사 p=1.00). 고급 그룹에서는 유표형 사람 명사를 포함한 나머지 명사에서도 응답 비율이 3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명사 간 유의미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동물 명사 p=1.00, 사물 명사 p=0.85, 물질 명사 p=1.00). 고급 그룹은 명사 종류에 상관없이 유표형 표지를 수용하는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그룹인 한국인 화자의 경우, 네 개의 명사 중 사람 명사에 대한 수용도 비율이 가장 높았고 동물 명사, 사물 명사, 물질 명사와도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동물 명사 p<0.01, 사물 명사 p<0.01, 물질 명사 p<0.01).

집단 간 전치 구조 내 유표형 명사에 대한 수용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를 통한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한국어 능숙도에 따른 명사별 수용도 차이는 초급과 고급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지만(p=0.04), 실험 그룹과 통제 그룹 간의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 명사만 제한시켜 대응별 비교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초급과 고급 그룹 사이뿐만 아니라 한국인 화자와 고급 그룹 사이에도 유표형 사람 명사에 대한 수용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0).

초급과 통제 그룹의 사람 명사를 제외한 타 명사의 유표형에 대한 수용도 비율은 전체적으로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 규명을 위해 문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응답에 대한 수정안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

4) 본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는 Paterson 외 (2003)에서 사용한 수용성 판단 과제('예'/'아니오')를 기반으로 한 결과에 적용된 통계 기법을 따라 분석하였다.
5) 대응비교에서 보고된 p 값들은 Bonferroni 수정을 거친 결과를 기반으로 하였다.

다. 실험 참가자들로부터 제안된 수정 답안들을 문법 요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전치 구조의 경우, (1)구조존치/'-들'탈락 유형은 어순의 변화는 없지만 유표형으로 나타난 명사에서 복수 표지 '-들'만을 탈락시킨 경우를 말한다. 이때 관형격 조사 '-의'의 포함 여부를 고려한 (2)는 (1)에서 '-의' 탈락이 추가된 유형을 별도로 범주화한 것이다. (3)구조변화/'-들'탈락은 전치에서 후치 구조로 전환하고 유표형 명사가 무표형으로 바뀐 경우로 가장 많은 변화를 동반한 유형이다. (4)구조변화/'-들'존치는 후치 구조로 전환은 되었지만 명사의 유표형은 그대로 유지된 경우이다. 후치 구조의 수정안 유형도 이러한 기준으로 범주화하였지만 구조 내 관형격 조사 '-의'가 사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카테고리는 제외시켰다.

표 3. 전치 구조에 대한 수정안 유형

능숙도	명사종류	구조존치(전치-->전치)		구조변화(전치->후치)	
		(1)'-들' 탈락	(2)'-의'탈락[6]	(3)'-들' 탈락	(4)'-들' 존치
초급	사람	30.8% (4/13)	3/4	30.7% (4/13)	38.5% (5/13)
	동물	15.8% (3/19)	2/3	63.2% (12/19)	21% (4/19)
	사물	25% (6/24)	4/6	54.2% (13/19)	20.8% (5/19)
	물질	23.8% (5/21)	4/5	61.9% (13/21)	14.3% (3/21)
	총합	24.4% (18/77)	13/18	54.5% (42/77)	22.1% (17/77)
중급	사람	43.8% (7/16)	5/7	56.2% (9/16)	0% (0/16)
	동물	29.4% (5/17)	2/5	70.6% (12/17)	0% (0/17)
	사물	16% (4/25)	3/4	72% (18/25)	12% (3/25)
	물질	8.3% (2/24)	2/2	91.7% (22/24)	0% (0/24)
	총합	20% (16/80)	12/16	76.3% (61/80)	3.7% (3/80)
고급	사람	17.1% (6/35)	0/6	82.9% (29/35)	0% (0/35)
	동물	17.6% (6/34)	4/6	82.4% (28/34)	0% (0/34)
	사물	21.9% (9/41)	5/6	78.1% (32/41)	0% (0/41)
	물질	11.1% (4/36)	0/4	88.9% (32/36)	0% (0/36)
	총합	20.3% (31/153)	9/31	79.7% (122/153)	0% (0/153)
한국인화자	사람	57.9% (11/19)	0/11	42.1% (8/19)	0% (0/19)
	동물	61.5% (24/39)	0/24	38.5% (15/39)	0% (0/39)
	사물	60.4% (32/53)	0/32	39.6% (21/53)	0% (0/53)
	물질	66.1% (37/56)	0/37	33.9% (19/56)	0% (0/56)
	총합	62.3% (104/167)	0/104	37.7% (63/167)	0% (0/167)

<표 3>에서 보듯이, 초급 그룹에서는 유표형 명사구에 대한 수용도가 가장 높았던 사람 명사를 제외하고 동물 명사, 사물명사, 물질 명사의 수정 대안으로 전치 구조 내 명사의 '-들' 탈락을 제안하기보다 후치 구조의 '-들' 탈락을 제안한 비율이 높았다. 후치 구조를 제안한 수정안에서도 '-들' 삽입보다 '-들' 탈락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들'의 탈락 여부에 상관없이 구조 전환에만 초점을 두어 그 비율을 계산하면 후치 구조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

6) '-의' 탈락 수정안의 수치는 구조존치/'-들' 탈락 수정안 중 '-의'가 탈락된 경우를 별도로 계산한 것이므로 전체 모수는 구조존치/'-들' 탈락 수정안에 해당되는 전체 빈도수이고 그 중 '-의' 탈락 사례를 빈도로 표기한 것이다.

상은 중급 그룹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전치 구조의 '-들' 탈락보다 후치 구조 전환에서 무표형 명사구를 제안한 비율이 높았다. 고급 그룹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세 개의 실험 그룹 전반에서 관찰된 또 다른 형태의 오류는 전치 구조 내의 관형격 조사 '-의'의 탈락이다. 초급과 중급 그룹의 전치 구조 관련 수정안에서 구조 변화 없이 '-들' 탈락을 제안한 대부분의 답안 중 '-의' 탈락이 차지한 비중이 70%를 넘었다(예, *두 명 사람).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고급 그룹에서 현저히 줄어들었다. 고급 그룹은 전치 구조 내 관형격 조사 '-의'의 기능을 이해하고 '-들' 탈락과 후치 구조 전환에만 초점을 둔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실험 그룹과 매우 대조적인 수정안을 제시한 통제 그룹에서는 전치 구조를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의 대부분이 '-들'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안 분석 결과, 후치 구조로의 전환보다 구조 변화 없이 '-들' 탈락을 제안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통제 그룹에 비해 전치 구조에 대한 수용도를 결정할 때 형태적 문법 요소보다는 통사적 요소에 기반을 두며 이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급 수준까지도 전치 구조 자체를 수용하기보다 후치 구조로 전환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관형격 조사 '-의' 역시 고급 수준에서야 이해하게 되었으나 한국인 성인 화자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통해 전치 구조 내 수사 제약이 습득하기 어려운 문법임을 알게 되었다.

4.2 후치 구조 분석 결과

전치 구조와 마찬가지로 후치 구조의 유표형 명사구에 대한 수용도 역시 명사별 판단과제에서 얻은 '예' 응답 비율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개체 내 효과 검정 실시 결과, 명사유형 효과((F(3, 90)=31.32[7], p<0.00)가 있고 개체-간 효과 검정 결과에서도 그룹 유형((F(3, 45)=11.91, p<0.00)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사 유형x그룹 유형(F(9, 90)=3.72 p<0.00)간에도 교호 작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사별 유표형 명사구에 대한 수용도 비율은 그룹 종류에 따라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정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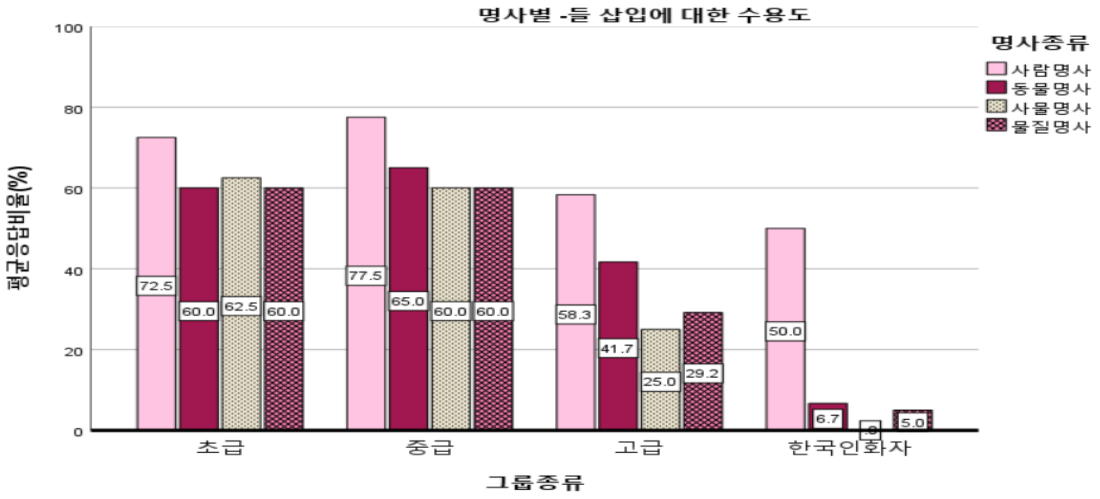

그림 2. 후치 구조의 유표형 명사에 대한 수용도

7) 구형성 가정이 만족되지 않아 Greenhouse-Geisser 값으로 검정값을 측정하였다.

초급 그룹에서는 유표형 사람 명사에 대한 수용적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동물 명사, 사물 명사, 물질 명사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동물 명사 p=0.78, 사물 명사 p=1.00, 물질 명사 p=0.74). 중급 그룹도 초급 그룹과 동일하게 유표형 사람 명사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타 명사와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동물 명사 p=0.78, 사물 명사 p=0.19, 물질 명사 p=0.19). 두 개 그룹과 달리, 고급 그룹에서는 유표형 사람 명사에 대한 수용 비율이 58.3%로 동물 명사와 통계적 차이는 나지 않았으나(p=0.17), 사물 명사와 물질 명사와는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사물 명사 p=0.00, 물질 명사 p=0.00). 반면 사물 명사와 물질 명사의 응답 비율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1.00). 정리하면 초급과 중급 그룹에서는 유표형 명사 간 수용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고급 그룹은 사람 명사의 수용도가 타 명사와 다름을 알 수 있다. 통제 그룹은 예상과 달리 사람 명사에 대한 수용도 비율이 50%에 그쳤으나, 동물 명사, 사물 명사, 물질 명사와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동물 명사 p=0.00, 사물 명사 p=0.00, 물질 명사 p=0.00).

그룹 간 유표형 명사 수용도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Scheffe의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실험 그룹 간 후치 구조의 유표형 명사구에 대한 수용도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국인 성인 화자 그룹은 초급 및 중급 그룹과 통계적 차이(초급 p=0.00, 중급 p=0.00)가 나타났으나 고급 그룹(p=0.11)과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표 4>는 후치 구조에 대한 부정적 응답에 대한 수정안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 4. 후치 구조에 대한 수정안 유형

능숙도	명사종류	구조변화(후치-->전치)		구조존치(후치-->후치)
		(1)'-들' 탈락	(2)'-들' 존치	(3)'-들' 탈락
초급	사람	7.1% (1/14)	28.6% (4/14)	64.3% (9/14)
	동물	0% (0/17)	11.8% (2/17)	88.2% (15/17)
	사물	0% (0/7)	28.6% (2/7)	71.4% (5/7)
	물질	0% (0/20)	20% (4/20)	80% (16/20)
	총합	1.7% (1/58)	20.7% (12/58)	77.6% (45/58)
중급	사람	0% (0/14)	0% (0/14)	100% (14/14)
	동물	0% (0/14)	0% (0/14)	100% (14/14)
	사물	0% (0/16)	6.3% (1/16)	93.7% (15/16)
	물질	0% (0/16)	0% (0/16)	100% (16/16)
	총합	0% (0/59)	1.7% (1/59)	98.3% (58/59)
고급	사람	0% (0/20)	0% (0/20)	100% (20/20)
	동물	0% (0/27)	0% (0/27)	100% (27/37)
	사물	0% (0/35)	0% (0/35)	100% (35/35)
	물질	0% (0/23)	0% (0/23)	100% (23/23)
	총합	0% (0/105)	0% (0/105)	100% (105/105)
한국인화자	사람	0% (0/27)	0% (0/27)	100% (27/27)
	동물	0% (0/53)	0% (0/53)	100% (53/53)
	사물	0% (0/55)	0% (0/55)	100% (55/55)
	물질	0% (0/54)	0% (0/54)	100% (54/54)
	총합	0% (0/189)	0% (0/189)	100% (189/189)

<표 4>에서 보듯이, 후치 구조의 유표형 명사에 대한 수정안 분석 결과, 모든 참가 그룹에 걸쳐 전치 구조로의 전환보다 후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며 '-들' 탈락을 제안한 응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초급 그룹에서는 후치 구조의 유표형은 유지한 채, 전치 구조로 전환한 경우가 22.4%('-들' 탈락 비율+'-들' 삽입 비율)이지만, 구조 변화 없이 '-들' 탈락만을 제안한 답안은 77.6%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중급에서 통제 그룹까지도 모두 전치 구조로의 전환을 수정안으로 제시하기보다 어순 변화 없이 '-들' 탈락을 제안한 비율이 95%~100%까지 나왔다. 이러한 수정안 유형별 분석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후치 구조는 전치와 달리, 사람 명사를 제외하고 [-human] 명사의 복수 표지로서 무표형을 강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순 전환은 고려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3 논의

본 연구는 한국어 능숙도가 다른 세 그룹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수분류사 구문의 수사 제약 관련 복수 표지와 수분류사구의 통사적 구조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치 구조를 이해할 때, 한국인 화자는 유표형으로 나타난 사람 명사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반면, 동물 명사에서 물질 명사까지 무표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후치 구조에서도 나타났고 이를 통해 이론적 연구에서만 논의되었던 이른바 수사 제약이 한국인 화자의 수분류사 구문 이해 과정에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정성]인 동물 명사에서도 사람 명사에 비해 무표형 선호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한국어 수사 제약은 명사의 [±유정성] 보다 더욱 세부적인 [±human] 자질에 따라 수분류수가 구문 내 복수 표지 실현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인 학습자 그룹은 전치 구조에서 초급을 제외한 모든 그룹에 걸쳐 유표형 사람 명사에 대한 수용 비율이 낮았고 그 이유로 무표형 후치 구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치 구조의 경우, 전체적으로 어순 전환 없이 무표형을 선호하였다. 초급과 중급에서 사람 명사뿐만 아니라 무표형으로 나타나야 하는 사물 및 물질 명사까지 과도한 '-들' 사용 오류가 관찰되었으나 고급 수준으로 갈수록 무표형 후치 구조 선호 비율이 높아지며 한국인 원어민과 유사한 응답 양상을 보였다.

실험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 중에는 습득 과정에 나타난 오류 양상과 원인에 대해 선행 연구 결과와 연계하여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예상과 달리 초급 그룹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모국어 전이 유표형 사람 명사에 대한 긍정적 수용 비율이 높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우선 이러한 응답 패턴을 모국어 전이로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만약 그러한 영향을 받았다면, 명사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무표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표형 사람 명사에 대한 높은 수용도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한국어의 수사 제약에 따르면 수분류사 구문의 복수 표지 [±plural]는 결합 명사의 [±human] 자질에 따라 유표 또는 무표로 결정이 나는데 이러한 [±human] 자질 구성은 중국어에서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수사가 등장하면 결합 명사가 어떠한 자질을 보유하고 있던지 복수 표지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L1 문법을 가진 중국인 한국인 학습자는 관련 L2 문법을 습득하기 위해서 복수 표지에 대한 [±human] 자질 집합을 새롭게 추가해야 하고 더 세부적으로는 [+human]만이 [+plural]가 된다는 세부 자질 재구성 및 재맵핑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질 재조립은 언어 습득에 어려운 과제이며 고급 수준에 이르러서야 가능해진다고 하였다(Lee and Lardiere, 2016). 이것을 감안할 때, 유표형 사람 명사에 대해 높은 수용도를 보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가 원어민 수준의 수사 제약 문법을 습득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사항은

유표형 사물 명사와 물질 명사가 저조한 비율로 수용되었고, 이에 대한 수정안 분석 결과, 무표형 후치 구조를 선호했다는 것이다. 만약, 사람 명사뿐만 아니라 타 명사에까지 수사 제약이 적용되었다면, 이러한 구조 전환 없이 적어도 사물과 물질 명사에서만은 무표형 명사를 제안했어야만 했다. 따라서 초급 그룹에서 보인 응답 양상은 수사 제약 자체에 대한 지식보다는 한국어 복수 형태소 '-들'이 사람 명사와 공존 가능하다는 지식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전치 구조 결과에서 초급 그룹뿐만 아니라 고급 그룹의 응답 양상도 수정안 결과와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급 그룹은 명사 종류에 상관없이 유표형 명사에 대한 수용도가 매우 낮았고, 그 이유로 무표형 후치 구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인 화자의 응답 양상과 매우 대조적이다. 한국인 성인 화자는 전치 명사의 유표형 명사구를 대체할 표현으로서 구조는 존치하되 '-들' 탈락만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 능숙도가 높은 중국인이라 하더라도 전치 구조 내 수사 제약을 한국어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려움이 동반됨을 알 수 있다.

전치 구조와 달리 후치 구조에서는 초급과 중급 그룹을 중심으로 모든 명사에 '-들'이 과도하게 사용된 오류가 발생하였다. 비록 중국어에 존재 하지 않는 후치 구조이지만, 사람 명사뿐만 아니라 '-들'과의 결합이 어색한 사물 명사나 물질 명사에까지 '-들'이 삽입된 것은 예측하지 못한 결과이다. L1에 존재 하지 않는 문법을 L2에서 습득하게 될 시 기존의 문법 자질을 재조립 및 재맵핑 하면서 중간어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Hwang, 2016; Lardiere, 2008; Lee and Lardiere, 2016; Su, 2019). L1 문법에 없는 통사적 요소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나름의 과도기적 문법을 형성하고 이에 따라 '-들'의 과도한 일반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고급 그룹에서는 이러한 유표형 사물 및 물질 명사에 대한 수용도가 매우 낮아지며 사람 명사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한국인 성인 화자가 보여준 응답 양상과 유사하다. 이를 통해서 후치 구조의 수사 제약 지식은 고급의 한국어 능숙도 단계까지 지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종류의 수분류사 구문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결과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후치 구조에 대한 높은 선호도였다. 이는 L1에도 존재하는 전치 구조를 L2의 문법에 따라 수정하는 것보다 L1에 존재하지 않는 L2의 통사적 문법 요소를 새롭게 학습하는 것이 쉬웠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에서 기존의 형태-통사적 문법 습득 연구에서 빈번하게 논의된 모국어 전이가 초급 단계에서도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후치 구조 중심의 이해도는 형태-통사적 L2 습득 연구나 자질 재조립 가설에서도 모국어 전이와 함께 많이 언급된 입력 빈도(input frequency)로 해석될 수 있다 Hwang(2016)에서도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가 L1에 존재 하지 않은 한국어 후치 구조를 중급 및 고급 그룹 모두 잘 습득하였고 이를 한국어 코퍼스 결과[8]에서 나온 바와 같이 후치 구조가 빈번하게 노출된 영향으로 추론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와 연계하여 본 연구에서도 초급 학습자 단계부터 전치보다는 후치 구조를 선호하고 학습자 그룹 전반에 이러한 선호도가 강하게 나타난 것에 대해 입력 빈도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보다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추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사용한 한국어 텍스트를 대상으로 수분류사 구문의 어순 빈도 조사 및 상관관계 분석이 별도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8) Hwang(2012)의 연구는 한국어 코퍼스에서 전치 및 후치 구조의 빈도를 조사하기 위해 사람 명사와 사물 명사의 특정 분류사, 즉 '명' 및 '권'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사람 명사 중에서 '명'을 포함한 경우, 구어 및 문어 코퍼스에서 무표형 사람 명사가 두드러지게 많이 사용되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구어에서는 유표형이 38.1%, 무표형이 61.9%이며, 문어에서는 유표형이 18.5%, 무표형이 81.5%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또한 '명' 분류사를 사용한 수량적 명사구에 대한 전치 및 후치 구조의 빈도를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구어와 문어에서 모두 전치보다는 후치 구조 형태가 더 많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구어에서 후치 구조의 빈도가 더 높았다. 사물 명사 '책'의 경우에도 분류사 '권'은 후치 구조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다. 이로써 한국어의 수분류사 구문은 이론적으로는 전치와 후치 구조가 모두 허용되지만, 실제로는 후치 구조의 사용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전치 구조를 판단하는 과정에 발견된 관형격 조사 '-의' 탈락 현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초급과 중급의 학습자 그룹에서 전치 구조에 대한 수정안 대부분에서 관형격 조사 '-의'가 탈락된 채 제시되었다. 고급 수준이 되어서야 비로써 관련 오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Hwang(2016)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능숙도가 낮은 그룹에 한해서 모국어 전이(L1 transfer)로 인하여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 한국어와 동일하게 중국어에서도 전치 구조가 존재하나 분류사와 피수식 명사 사이에는 어떠한 문법적 요소가 삽입되지 않는다. 이러한 형태적 요소의 상이점은 한국어 능숙도가 낮은 학습자일수록 습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 '-의' 삭제 오류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입력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급 수준에서는 관련 문법 요소에 대한 바른 용례를 익혔으리라 본다.

본 실험에서 고급 능숙도의 학습자는 전치 구조의 '-의'에 대한 이해가 원어민 수준에 미쳤으나, 여전히 전치/ 후치 구조 모두가 허용되는 문법에 대해 원어민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서 한국어 수분류사 구문 습득은 모국어와 다른 자질의 존재 여부 확인, 유사 문법요소와 재맵핑 및 L2의 새로운 자질 집합 삽입, 입력 빈도에 따라 재구성하는 과정들의 연합으로 이뤄져야 하는 어려운 과제임을 말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수분류사 구문 및 구문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서 한국어의 수사 제약, 복수 표지, 수분류사 구문의 구조 및 용례에 대한 명시적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만 논의된 한국어 수사 제약에 대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능숙도에 따라 어떠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수분류사 구조의 유형에 따른 중국인 학습자의 선호도를 파악하고, 자질 재조립 가설에 기반하여 전반적인 목표 언어 발달 단계를 추적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통제 그룹인 한국인 성인 화자는 전치와 후치 구조에서 유표형 사람 명사에 대한 수용도가 높으나 동물 명사에서 물질 명사까지 무표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사 제약 원리에 따라 수분류사 구문 내 복수 표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전치 구조에서 초급 그룹에서만 유표형 사람 명사에 대한 수용도가 높았으나 사물 및 물질 명사에서는 무표형 후치 구조를 선호했다. 중급에 이어 고급 그룹까지 모든 명사에 걸쳐 후치 구조 무표형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치 구조 내 수사 제약이 습득하기 어려운 문법임을 시사한다. 이와는 반대로 후치 구조에서는 초급과 중급 그룹에서 유표형 명사에 대한 수용도가 높았으며, 과도한 –들 사용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나 고급 수준에서는 유표형 사람 명사와 다른 명사 간 수용도 차이가 나타나면서 한국인 성인 화자 그룹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전치와 후치 구조에 대한 비대칭적인 수용 양상이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나타난 후치 구조 중심의 선호도는 입력 빈도의 영향으로 보이는 기존 선행 연구와 일관성이 있다. 또한, 수사 제약은 고급 그룹의 학습자에게도 원어민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형태-통사적 복합 요소에 대한 이해와 연합을 통해서만 습득될 수 있는 어려운 문법임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사용된 실험 문장이 한 종류의 분류사와 결합한 특정 명사에만 국한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인 수분류사 구조에서의 복수 표지 실현을 논의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분류사의 종류가 다양하고 유정성 속성에 따른 명사가 문법화 과정을 거쳐 기존 기능과 다른 용법으로도 활용된 사례별 특이성이 관찰되기 때문에 실험 아이템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다소 따른다. 따라서 추후 연구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 실험 설계를 통해 본 실험의 결과를 보완하고 보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복수 표지 '-들'의 실현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 중 유생성 제약과 함께 이론적 연구에서만 논의 되어온 수사 제약에 대한 최초의 실증적 자료를 제공한 점에서 언어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더불어 연구 결과는 한국어 학습자가 수분류사 구문 내에서 발생하는 복수 표지 관련 오류 유형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향후 관련 문법 교육 내용 및 체계를 재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현재의 한국어 교재에 수사 제약과 관련된 복수 표지 '-들'의 실현 및 수분류사 구조의 다양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추가되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복수 형태론 문법 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강범모. 1999. *형식의미론과 한국어 기술*. 서울: 한신문화사.

김상대. 1994. 대명사의 형태적 특성. *아주어문연구, 1*, 1-19.

김소영. 2022a.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명사 유생성 제약에 따른 한국어 복수 표지 습득. *언어과학, 29*.3, 1-24.

김소영. 2022b. 한국어 복수 표지 '-들' 사용에 대한 언어 습득 연구-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명사 복수 표지를 중심으로-. *현대문법연구, 115*, 159-185.

박종언 · 박명관. 2020. 한국어 수분류사구의 통사 구조, 복수성 및 조응해석. *언어와 언어학, 88*, 107-134.

방향옥 · 강희숙. 2010. 중·한 복수 접미사 '-们'과 '-들'의 대조연구. *중국과 인문과학, 44*, 53-72.

백미현. 2002. 한국어 복수 의미 연구. *담화와 인지, 9*.2, 59-78.

순수함. 2021. 한국어 복수 표지 '들'과 중국어 복수 표지 '们'의 대조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신미경. 2013. 중국어 '们'과 한국어 '들'의 복수표현 대조 연구 –한국인 학습자의 '们' 첨가현상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63*, 27-45.

악일비. 2019. 유형론 시각에서의 명사 분류사 및 복수 표지 의미 기능 대조 연구. *중국어와 문학, 29*, 95-123.

이건희. 2018. 한국어 복수 표지 '들'의 습득 양상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새국어교육, 117*, 203-226.

왕효성. 2012. 한국어와 복수어의 복수표지에 대한 비교 -'들'과 '们'을 중심으로. *언어학 연구, 22*, 149-162.

정경숙. 2011. 영어 복수 명사 번역과 한국어 형태소 '-들'. *새한영어영문학, 53*.3, 237-262.

정혜. 2011. 한국어 복수 표지 -들에 관하여. *언어학 연구, 19*, 281-302.

정우영 · 양호. 2013. 한국어와 중국어 수량 표현구의 구조 비교. *철학·사상·문화, 16*, 189-216.

천왕팅. 2021. 한·중 복수표지 '-들'과 '们'의 대조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하신영. 2021. 초급 한국어 학습자 대상 복수 표지 '들'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91*, 53-79.

Hwang, S. H. 2012. The Acquisition of Korean Plural Marking by Native English Speakers. Dissertation. Georgetown University.

Hwang. S. H. 2016. The Acquisition of Korean Numeral Classifier Constructions by English-Speaking Learners. *Modern Grammar 88*, 99-122.

Lardiere, D. 2008. Feature Assembly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J. M. Liceras, H. Zobl, & H. Goodluck(ed.), *The Role of Formal Featur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New York: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06-140.

Lee, E. J. and Lardiere, D. 2016. L2 Acquisition of Number Marking in Korean and Indonesian: A Feature-Based Approach. In D. Stringer et al.(ed.), *Proceedings of the 13th Gener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onference.* Somerville, MA: Casadilla Proceedings Project, 113-123.

Paterson, K. B., Liversedge, S. P., Rowland, C., and Filik, R. 2003. Children's Comprehension of Sentences with Focus Particles. *Cognition 89*, 263-294.

Su, J. 2019. Reassembly of Plural and Human Features in the L2 Acquisition of Chinese by Adult Korean Speakers. *Second Language Research 35*.4, 529-555.

김소영, 교수
부산시 남구 신선로 (428)
동명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E-mail: ginlovego7@gmail.com